華嚴經類의 戒學에 관한 연구

本覺(陳永裕)
불교학과 교수

본 논문은 『화엄경』에 관계되는 제반 경전 및 논서에서 戒學에 관련된 부분을 검토하여 『화엄경』속에 戒學思想을 고찰한 논문이다. 『화엄경』에서 집중적으로 계학을 고찰할 수 있는 곳은 「정행품」「십행품」「십무진장품」「십회향품」「십지품」「리세간품」「입법계품」등이며, 이에 관련된 단행본의 경전과 논서 들이다. 특히 「정행품」에서는 보살 원행이 곧 보살계학임을 살필 수 있었고, 「십무진장품」에서는 요익계, 부주계등 10종계가 주목되며, 「십회향품」의 삼취정계의 명칭과 10종 戒香, 「십지품」의 십선도계, 「리세간품」의 10종계와 10종 청정계, 그리고 「입법계품」 善住비구의 법문 중에 20종의 계목이 화엄의 대표적인 계학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화엄의 계학은 십선도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대승계학을 대표하는 삼취정계사상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보살영락본업경』에서 대승 보살의 독자적인 계학을 형성하는 데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살필 수 있었다. 그리하여 화엄의 계학은 십선도를 토양으로 하여 삼취정계의 계학을 꽃피움에 있어서 그 계학의 성격을 善行계학, 空行계학, 慈行계학으로서 특징 지울 수 있으며, 이는 곳 보살도의 願行과 화엄계학이 不二의 관계에 있다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華嚴經類의 戒學에 관한 연구

本覺(陳永裕)
불교학과 교수

Ⅰ. 문제의 소재
Ⅱ. 화엄경류의 개요
1. 화엄경류의 원형경전
2. 화엄경 관련경전의 계학
Ⅲ. 화엄경류에 나타난 계학의 특성
1. 화엄계학의 명칭적 특성
2. 화엄계학의 사상적 특성
Ⅳ. 결 론

Ⅰ. 문제의 소재

본 논문의 연구 주제는 60권본과 80권본의 두 대본『화엄경』을 위시하여 이에 선행하는 각종 화엄경류의 단행 경전들을 기본 자료로 하여 화엄경류에 있어서의「戒學의 고찰」이 목적이다. 여기에서 화엄경류라 지칭함은 현존하는 대본『화엄경』의 성립에 있어서 기초적 역할을 한 초기의 단행 경전들과『화엄경』과의 사상적인 관련성을 인정받는 경전들을 총칭하여 이름한 것이다.[1)]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戒律이라는 숙어는 śīla와 vinaya의 전혀 다른 뜻을 나타내는 용어가 중국에 傳譯되면서 하나의 단어로 합성된 것으로서, 律의 원어는 vinaya이며 한문으로는 毘奈耶 또는 毘尼로 표기하며 律藏은 곧 vinaya-piṭaka이다. 제1결집 시에 "法과 律을 결집했다"함은 그 원어가 dhamma와 vinaya이다. 그리고 戒의 원어는 śīla로서 한문으로 尸羅로 표기한다. 三學의 하나인 '增上戒學(adhiśīla-sikkhā)'이며, 四預流支의

1) 大野法道, 1953,『大乘戒經の研究』, pp.143~144, 山喜房佛書林. 본서에서는 각 대승경전을 戒學의 관점에서 정리하고, 특히 화엄경 류의 계학에 대해서는 ①화엄 본부에 원류본, 대성본, 대성초출 및 확대본으로 나누고 ②화엄별부에서는 화엄 再現의 別經 ③화엄 관계의 7경 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화엄경류에서 戒學을 설하는 경전들로서는『菩薩本業經』류,『점비일체지덕경』류,『도세경』,『화엄경』의 각품, 그 외의 7경을 중점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제4 聖者所愛의 '戒成就'의 戒도 이 śīla이다. 그리고 '信' '戒' '聞' '捨' '慧'의 五法이나, 六法念의 '念戒'등도 역시 그 원어가 śīla로서 戒로 번역되는 대부분의 용어는 śīla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śīla에 상당하는 같은 의미의 용어는 sikkhā-padāni로서 한역 『아함경』에서 '五戒' '十戒'라고 말 할 경우에 그 원어는 '學處'라고 번역되는 sikkhā-padāni를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2)]

본 논문에서 대승경전의 戒를 살펴봄에 있어서 '戒學'이라는 용어를 채택한 것은, 대승경전에서의 戒는, 律이 의미하는 것과 같이 객관적이고 타율적인 규칙으로서의 행위의 제약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정신으로서 善을 증장시키는 근본 學處임을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는 곧, 大乘戒의 근본이 十善道임을 감안해 볼 때에 身·口·意 삼업을 바르게 다스려서 善을 증장시켜감은 좁은 의미에서의 율장의 인위적인 계율 조목을 벗어나서 일체 善法을 포괄하는 攝善法戒의 戒學정신에 접근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대승계학의 대표로서 화엄경류에 나타난 계학에 관한 모든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화엄경류의 개요

1. 화엄경류의 원형경전의 계학

1) 보살본업경류의 계학

화엄경류라함은 대본 『화엄경』의 성립에 있어서 골격의 역할을 한 초기 화엄계 경전과 각품의 내용이 초출되거나 혹은 증광되어서 전래된 별본 단행본 경전들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화엄경류의 원형 경전으로서는 『佛說菩薩本業經』(이하 『本業經』)을 들 수 있고, 이 경전은 『兜沙經』, 『諸菩薩求佛本業經』, 『菩薩十住經』, 『菩薩內戒經』 등과 관련이 있으며 이들 경전은 또한 「명호품」, 「광명각품」, 「정행품」, 「십주품」 등에 연관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대본 『화엄경』의 골격이 되었고 화엄경류의 원형경전인 『本業經』을

2) 平川彰, 1990, 『淨土思想と 大乘戒』, p.417, 春秋社. 본서에서 저자는 學處라는 용어 에 관하여 학처는 戒 혹은 律의 조문을 말하는 것으로 신자를 위한 오계나, 율장에 있어서도 비구·비구니계의 각 조문이 곧 학처가 되는데, 한역 율장에서는 『根本有部律』만이 이 학처라는 말을 쓰고, 『四分律』 『十誦律』 『마하승기율』등은 다 학처를 戒로 번역하고 있어서 戒와 律이 혼동된 근본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필두로 화엄 戒學을 살펴보고자 한다.

『本業經』은 吳의 支謙이 223~253년간에 번역한 것으로 『화엄경』의 「명호품」, 「광명각품」, 「정행품」, 「십주품」에 대응되는 경전이다. 이 『本業經』은 다시 처음 부분은 『兜沙經』(명호품, 광명각품)에 대응되고, 중간 부분은 별역인 『제보살구불본업경』(聶道眞역)에 대응되는 것으로 『本業經』의 「행원품」부터 「십지품」의 처음 부분이 이에 해당된다.[3] 그리고 뒷부분은 『菩薩十住行道品』(法護역)에 대응되는 것으로 여기에서의 十住의 명칭은 發意, 治地, 應行, 生貴, 修成, 行登, 不退, 童眞, 了生, 補處[4]로서, 이는 『華嚴經』의 「十住品」의 명칭과 상응하며, 각 住에 대한 설명 또한 『華嚴經』의 「십주품」과 대략 동일한 내용이므로 『華嚴經』의 「十住品」은 그 원형이 『本業經』의 「十地品」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화엄경류의 원형에 속하는 『本業經』은 戒學에 있어서도 근본이 되는 경전으로서 경의 제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살의 本業[5]을 추구함으로써 佛道의 極果에 나아가려 함이 경전의 근본 의도이다. 그 구성을 살펴보면 전체가 3부로 나뉘어져 있으며, 그 제1부는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華嚴經』의 「명호품」에 대응되는 부분으로서 佛世界와 여래의 名號를 나열하여 처음 成道의 장엄상을 나타내고 있다.[6] 그

3) 『本業經』권1(大正藏 10 · 447中~449下)

4) 『本業經』(大正藏 10 · 449下)

5) 『본업경』에서는 佛의 本業으로서 十地十智十行十投十藏十願十明十定十現十印(大正藏 10 · 446下)을 들고 있고 80『華嚴經』에서는 諸佛이 모든 보살을 위하여 十住十行十廻向十藏十地十願十定十通十頂 및 如來地 如來境界如來神力 등을 설하고 있음이 비교된다. (大正藏 10 · 58上)

6) 다음은 80『화엄경』과 『본업경』에 나타난 불세계의 장엄상과 불보살의 명호를 비교한 표이며 이는 곧 『본업경』의 처음 부분이 명호품에 상응함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의 명칭과 佛名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점이 있는 것도 비교 해 볼 수 있다. (大正藏 권10 · 58상~중, 446하) 또한 『보살영락본업경』의 10佛刹과 명호는 『본업경』과 동일하다. (大正藏 24 · 1010下)

80화엄경				본업경			
方向	世界名	佛名	菩薩名	方向	世界名	佛名	菩薩名
東方	金色	不動智	文殊師利	東方	香林	入精進	敬首
南方	妙色	無碍智	覺首	南方	樂林	不捨樂	覺首
西方	蓮花色	滅暗智	財首	西方	華林	習精進	寶首
北方	蒼蔔華色	威儀智	寶首	北方	道林	行精進	慧首
東北方	優鉢羅華色	明相智	功德首	東北方	青蓮	悲精進	德首
東南方	金色	究竟智	目首	東南方	金林	盡精進	目首
西南方	寶色	最勝智	精進首	西南方	寶林	上精進	明首
西北方	金剛色	自在智	法首	西北方	金剛	一乘度	法首
下方	玻瓈色	梵智	智首	下方	水精	梵精進	智首
上方	平等色	觀察智	賢首	上方	欲林	至精進	賢首

다음은 부처님이 足下相輪光明을 놓아서 일체 불찰에 백억분신을 나투어 불찰을 설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광명각품」과 대응되는 부분이다.

다음 제 2부는 「願行品」으로서 이는 『화엄경』의 「정행품」에 대응되는 부분이며, 화엄 戒學의 근본이 된다고 본다. 그리고 제3부는 「십지품」으로서 『화엄경』의 「십주품」에 대응되며 그 내용은 위에서 밝힌 바와 같다.

화엄경류의 원형경전인 『본업경』의 중심 사상은 「원행품」에서 찾을 수 있고, 「원행품」은 보살 행원의 근간이 되는 것을 戒學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행품」의 첫머리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모든 선남자 선여인이 佛道를 이루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먼저 그 몸을 바르게 하고 말과 생각이 상응하게 하며 입으로는 경전을 익히고 마음으로 실행할 바를 헤아려서 지나간 것을 바로잡고 다가 올 것을 닦아서 道意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德과 善을 쌓아서 은혜 베풀기를 게으르지 아니하면 묻는 바를 다 얻을 것이니 보살은 반드시 자세히 배워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같이 하며 스스로 서원을 세워서 세간을 편안케 하고 戒를 받들고 願을 실행하여 德의 근본을 세우라[7]

위의 인용문의 요점은, 보살은 먼저 身·口·意 삼업을 바르게 하여 일체 복덕과 선행을 쌓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奉戒行願으로 德의 근본을 세운다"는 부분이다. 그리고 보살의 135願의 첫 번째는 "집에 거하여 戒를 받들 때에 응당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탐욕의 마음을 벗어나서 空法 가운데에 들어가지이다"하는 願으로 시작한다.[8]

이처럼 『본업경』에서 戒를 중요시하는 자세는 「원행품」 게송의 마지막에 "이상이 보살의 戒와 願의 俱行이며 慈愛와 布施를 겸하여 十方중생을 버리지 아니함"[9]이라고 결론짓는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이는 곧 보살 원행의 내용이 三業을 맑히는 戒行으로 근본을 삼고 모든 중생을 향한 慈悲行의 실천으로 마감하는 것이라고 요약 할 수 있는 것이다.

『화엄경』의 「정행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승보살은 在家와 出家를 논하지 아니하나 在家 보살은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나 出家의 청정행에 나아가려고 정진할 것을 설하고

---

7) 『본업경』(大正藏 10 · 447中)

8) 이는 『화엄경』의 「정행품」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菩薩在家'로 표기되어 있는데, 『본업경』에서는 '居家奉戒'라고 하여 첫부분부터 奉戒의 정신이 강조되어 있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大正藏 9 · 430下/ 大正藏 10 · 70上, 447中비교 참조)

9) 是爲菩薩 戒願俱行 兼愛博施 不捨十方 (『본업경』, 大正藏 10 · 449中)

정진을 지속시켜 나아가는 의지력이 바로 계행에 근본한 생활 자세라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淨戒에 근본을 둔 願行을 서원함에 있어서는 중생을 향한 자비 덕행이 강조됨을 볼 수 있다.

현행 대본『화엄경』의「정행품」은 전체 141게송이며 재가의 바른 생활을 시작으로 원행 속에 출가의 길에 들어서고 三寶에 귀의하는 것으로 戒學의 기초를 세우고, 제23, 24, 25, 26 게송에서 특히 戒學 정신을 읽을 수 있다. 이 부분의 경문은 대본『화엄경』두본은 동일함으로 여기에서는 60『화엄경』과『본업경』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표1>

60『화엄경』(大正藏 9 · 430~431上)	『본업경』 (大正藏 10 · 447下)
自歸於佛 當願衆生 體解大道 發無上意	受成就戒 當願衆生 得道方便 慧度無極
自歸於法 當願衆生 深入經藏 智慧如海	守護道禁 當願衆生 皆奉法律 不犯法教
自歸於僧 當願衆生 統理大衆 一切無碍	始受和尙 當願衆生 令如禪意 思惟解脫
受持淨戒 當願衆生 具足修習 學一切戒	受大小師 當願衆生 承佛聖教 所受不忘
受行道禁 當願衆生 具足道戒 修如實業	自歸於佛 當願衆生 體解大道 發無上意
始請和尙 當願衆生 得無生智 到於彼岸	自歸於法 當願衆生 深入經藏 智慧如海
受具足戒 當願衆生 得勝妙法 成就方便	自歸於僧 當願衆生 依附聖衆 從正得度

이상의 표에서 대비되는 것은 첫째는 三歸依文이 순서가 바뀌어 있는 점이고 둘째는 대본『화엄경』에서 '具足戒'라는 용어가 있는 것에 비하여『본업경』에서는 '大小師'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이다. 즉, 대본『화엄경』에서는 具足戒까지를 포함해서 보살이 계학에 나아가는 단계를 '學一切戒,' '修如實業,' '到於彼岸,' '成就方便'의 네 단계로 나누어서 설하고 있음에 비하여『본업경』에서는 具足戒 대신에 대소의 스승으로부터 받은 바 가르침을 잊지 않는다는 서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具足戒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아니한 점이다.

그리고 60『화엄경』제108, 109게송에서는 "戒를 지키기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모든 중생이 도리어 뭇 善을 버리지 않고 열반에 나아가기를 원하며, 戒를 버리는 사람을 볼 때에는 모든 중생이 함께 뭇 어려움을 벗어나서 三惡道를 건너기를 원하라"는 경문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의 경문은 두 대본『화엄경』과『본업경』이 각각 다르므로 서로 대조해 보고자 한다.

<표2>

『본업경』(10 · 449上)	60『화엄경』(9 · 432上)	80『화엄경』(10 · 71中~下)
入人堂室 當願衆生 昇佛聖堂 深行微妙	入人堂室 當願衆生 入一佛乘 明達三世	入其家已 當願衆生 得入佛乘 三世平等
人不與食 當願衆生 得般若意 無忘無錯	遇難持戒 當願衆生 不捨衆善 永度彼岸	見不捨人 當願衆生 常不捨離 勝功德法
主人來辦 當願衆生 離三惡道 無飢渴想	見捨戒人 當願衆生 超出衆難 度三惡道	見能捨人 當願衆生 永得捨離 三惡道苦
授空應器 當願衆生 皆得至空 無欲之性	若見空鉢 當願衆生 其心淸淨 空無煩惱	若見空鉢 當願衆生 其心淸淨 空無煩惱
受滿應器 當願衆生 一切成滿 道品之法	若見滿鉢 當願衆生 具足成滿 一切善法	若見滿鉢 當願衆生 具足成滿 一切善法

이상의 대조와 같이 경문의 전후로 보아서 그 내용은 沙門이 乞食을 할 때에 재가의 집에 들어감을 마치 法堂에 들어가서 미묘한 경지에 나아감과 같이하고 공양을 받고 받지 못함에 동요됨이 없이 청정한 마음을 지속시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와같은 부분에서 60『화엄경』만이 '戒를 가지기 어려움'이라든가 '戒를 버린 사람'등의 경문을 쓴 것은 그 내용으로 보아서 불합리한 부분이다. 이러한 경문의 대조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지적 할 수 있다.

즉 <표1>에서는 대본『화엄경』이 보살도의 戒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三歸戒를 두고 있는 것과『본업경』에서는 볼 수 없는 '具足戒'라는 용어를 대본『화엄경』에서는 쓰고 있는 점이다. 이는 곧 대본『화엄경』에서 三歸戒로 戒學의 기초 내지는 얕은 단계를 삼는 듯한 인상을 보이며, 특히 대승경전의 계학에 있어서 결코 부파소전의 戒律인 구족계가 내용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한역 律藏의 번역 연대와 60『화엄경』의 번역 연대가 근접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10],『본업경』에 없던 '구족계'라는 말이 첨부된 것은 한역 율장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게 한다. 이 문제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반야경』에 있어서도 비슷한 경향이 보인다.『반야경』초기의 戒 바라밀의 내용이 十善道로 시작되어『大智度論』에서는 十善戒를 總相戒로 삼고 있다. 즉,

10) 60『화엄경』의 번역 연대는 418~420년이며,『鼻奈耶』는 382년,『十誦律』은 404년,『마하승기율』은 416년,『오분율』은 524년,『유부율』은 703년에 번역되었다.

묻기를, 『羅 바라밀은 곧 一切戒法을 총섭함이 大海가 衆流를 총섭함과 같다 하나, 그러나 不飮酒, 非時食, 중생을 해치지 않는 등은 十善에 포함되지 않았으니 어떻게 십선만을 설하는가.

답하기를, 부처님이 총상으로 6바라밀을 설하시며 십선이 總相戒가 되며, 別相은 無量戒가 있으니…이런 까닭에 十善道가 一切戒를 총섭함이라. 다시 보살은 자비심을 일으켜서 아뇩보리를 발하고 보시로 중생을 이익케하며 持戒로 중생 을 괴롭히지 아니하고 고통과 공포를 덜어 주나니 十善道가 근본이 된다.[11]

라고 하여 십선계로 총상이 됨을 설하는 부분이다. 또한 般若사상의 空觀에 입각해서 罪와 罪아님이 不可得인 연고로 시라바라밀을 구족할 수 있다고 하며[12] 시라바라밀에 의지할 바가 있음을 世間의 시라바라밀이라하고 의지할 바가 없음을 出世間의 시라바라밀이라[13]는 등의 설은 戒相의 不可得을 주장하는 반면에, 후기 성립의 반야경류에서는 戒學의 범위가 보다 넓어져서 三歸, 五戒, 八戒, 十戒, 十善, 具戒, 菩薩戒등 一切戒를 다 포괄적으로 거론하고 있다.[14]

따라서 『본업경』에 없는 '구족계'라는 명칭이 대본『화엄경』에 보이고 있는 것은 후기에 전래 과정에서 첨부된 부분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 문제는 『十住毘婆沙論』에서 大乘菩薩로서 出家菩薩과 在家菩薩이 있음을 설하고 재가보살의 20종 行法에 이어서 출가보살이 실천할 삼매법으로서 60行法을 설하는 가운데에 17행법까지가 戒法에 관한 것이고 특히 제12 隨波羅提木义戒와 제13 具足威儀行處[15]는 부파교단의 전래인 율장의 규범을 받아들여서 출가보살의 行法으로 삼고 있다. 또한 『대지도론』에 있어서도 居家持戒로 下, 中, 上, 上上의 持戒를 설한 다음에 出家持戒로서 사미사미니계, 식차마나계, 비구니계, 비구승계를 거론하고 오롯한 마음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출가를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본다.[16] 이는 『대지도론』에서도 시라바라밀로서 십선도 뿐만 아니라 부파교단의 律儀가 인정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 <표2>에서는 경문의 전후로 보아서는 『본업경』의 글이 순조롭고, 戒學을 강조한 면에서는 60『화엄경』이 스스로 戒를 지키기 어려울 때도 뭇 善을 지켜서 열반에 이르러

11) 『지도론』(大正藏 25 · 395中~下)
12) 『마하반야바라밀경』 序品 (大正藏 8 · 220上)
13) 上同 (大正藏 8 · 272中~下)
14) 『대바라밀경』 靜慮바라밀다분에 보살은 有情에게 삼귀, 오계, 팔계, 십계, 십선도, 구계 등을 다 수지케하고 더나아가서 보살계를 수지 하여 일체지지에 회향해 나아간다고 설하고 있다.(大正藏 7 · 1062中)
15) 『시주비바사론』(大正藏 26 · 87上)
16) 『지도론』(大正藏 25 · 160下)

고 서원하고, 戒를 버리는 사람을 보더라도 뭇 어려움을 벗어나서 三惡道를 벗어나려는 서원을 세울 것을 설하고 있다. 끝으로 『본업경』의 「십지품」에서는 특별히 戒學에 관한 경문은 보이지 않는다.

2) 점비일체지덕경류의 계학

『漸備一切智德經』(이하『智德經』)은 서진의 竺法護에 의해서 297년에 번역된 경전으로서, 『十住經』(구마라습역), 『十地經』(보리류지역), 『佛說十地經』(시라달마역), 『화엄경』「십지품」등의 보살십지 계통의 원형 경전이다. 따라서 智德經류의 계학은 곧 『화엄경』 보살십지의 계학을 의미하는 것이며 「십지품」의 戒學을 살피는 결과가 된다.

『화엄경』 보살십지의 行程은 곧 반야의 6바라밀에 이은 화엄의 10바라밀에 대응되는 수행 과정으로서 戒學의 영역인 持戒 바라밀은 제2地인 「離垢地」 보살의 실천행으로서 전개되어 있다.

『智德經』을 시작으로하여 모든 『十地經』계통의 제2지의 계학은 십선도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은 『반야경』의 계바라밀과 동일한 맥락이다. 『智德經』에서는 초지를 설하는 경문 속에 "慚愧의 옷을 입고, 戒德으로 自熏하며 인욕심으로 和하고 精進은 지나침이 없으며, 一心智慧로 행하는바 정진은 자기와 다른 이를 위하여 慚愧行이 이루어지나니 이와 같이 수행함이 곧 出家"[17]라고 설하는 부분에서 참괴의 정신과 계를 지키는 덕행으로서 스스로를 단련함이 곧 출가 수행의 근본이 됨을 설한다. 다시 제2離垢地에서는 특히 화엄십지의 戒學을 설하는 곳으로 그 내용은 十善戒가 근본이 된다. 이 제2지에서의 화엄 십선계의 특색을 다음의 네 종류로 논하고 있다.

> 첫째는 戒學의 기본을 10종直心에 두며,
> 둘째는 계학을 수지하는 정도에 따라서 人界 내지는 佛界를 얻으며,
> 셋째는 持戒로 부터 대자비를 출생시키며,
> 넷째는 持戒로서 단련하여 일체 악업을 여의는 등으로 요약한다.[18]

이는 곧 「십지품」의 제2지의 경문에 의거한 요약으로서 『智德經』을 위시해서 십지계통의 각경전에 제2지의 기틀이 되는 보살심을 10事, 10意, 10種意樂 혹은 10種直心에 두고 있음을 본다. 경문을 통하여 고찰해 보자.

---

17) 『智德經』(大正藏 10 · 463下)

18) 大野法道, 앞의 책, p.147.

<표3>

『智德經』	「보살십주행도품」	『십주경』 § 『십지경』	『화엄경』십지품
志性柔和而無麤獷	悉念世間人善	柔軟心 § 正直意樂	柔軟心 § 正直心
修正眞業無有邪思	淨潔心	調和心 § 柔軟意樂	調和心 § 柔軟心
其行質直永無諛諂	皆安隱心	勘受心 § 堪能意樂	堪受心 § 堪能心
心懷調仁不爲嗔恨	柔軟心	善心 § 調伏意樂	不放逸心§ 調伏心
其行寂然未曾憒亂	悉愛等	寂滅心 § 寂滅意樂	寂滅心 § 寂靜心
意抱至眞不爲虛僞	心念但欲施與人	眞心 § 賢善意樂	眞心 § 純善心
其行方幅無有雜碎	心悉當護	不雜心 § 不雜意樂	不雜心 § 不雜心
進止坦然無所貪慕	心念人與我身無異	無貪恪心§無顧戀意樂	無貪吝心§ 無顧戀心
行在微妙不爲下劣	心念十方人我觀如師	快心 § 勝妙意樂	勝心 § 廣心
其意寬弘未曾迫迮	心念十方人視如佛	大心 § 廣大意樂	大心 § 大心
(大正藏 10・465下)	(大正藏 10・454下 ~ 455上)	(大正藏 10・504中 / 10・542中)	(大正藏 9・548下 / 10・185上)

이상이 『智德經』계통의 각 「십지품」 제2지의 '10종 직심'을 총괄한 도표로서, 이를 통하여 제2지 10종 직심의 전체 대의를 조망할 수 있다. 각 경전이 字句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인 의미는 동일하다. 십지경전의 원형이 되는 『智德經』이 가장 그 뜻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즉,

첫째는 志性이 유화하여 거칠고 들뜸이 없고
둘째는 正眞業을 닦아서 삿된 생각이 없고
셋째는 그 행위가 올곧아서 거짓됨이 없고
넷째는 마음을 조화롭게 다스려서 성내고 원망함이 없고
다섯째는 행위가 고요하여 어지럽고 산란함이 없고
여섯째는 뜻이 숭고하여 허위를 여의었고
일곱째는 행이 바르고 넓어서 조잡함이 없고
여덟째는 나아가고 그침이 대범하여 탐착함이 없고
아홉째는 행함이 미묘하여 하열하지 않고
열째는 그 뜻이 넓고 커서 조금도 조여듦이 없다

라는 뜻으로 제2지 보살의 기본 心性을 이 10종 直心에 두는 것은, 이것이 곧 일체 戒學을 성취해 나아가는 데에 근간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보살은 이 열 가지 마음을 갖추고 제2지에 들어가서 일체 惡의 근본이 되는 殺·盜·婬 등의 10종 不善業을 버리고 十善을 성취한다고 보는 것이 화엄계학의 근본 사상이다.

다음의 문제로서 화엄의 십선도는 동일한 십선도라 하더라도 십선도를 닦아 실천하는 수행인의 단계가 어느 수준에서 실행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上品의 십선도 내지는 上上品의 십선도 등으로 나누어진다고 설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문제를 『智德經』에 의하면, 십선을 닦은 공덕으로 삼악도를 면하고 인간에 태어나거나, 천상 세계에 태어나기도 하고 대지혜를 이루어서 삼계를 두려워하고 大哀心을 일으켜서 다른 이를 해롭게 하지 아니하고 차례로 聲聞과 緣覺을 이루고 나아가서는 일체 중생을 구하려는 서원으로 부처님의 걸림 없는 지혜와 보살의 청정도를 이루고 10力, 18불공법을 성취하여 正覺을 이루는 단계에까지 나아감을 설하고 있다.[19] 이 부분을 80『화엄경』에서는 아래의 인용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다 분명하게 십선도의 실천에 차등이 있음을 설하고 있다.

> 다시 이 생각을 짓나니, 십불선업도는 지옥·축생·아귀의 受生因이 되며, 또 이 上品 십선도는 智慧의 修習으로 마음이 협열한 까닭에 三界를 두려워하고 大悲를 궐한 연고로 聲聞에 의지해서 解了한 까닭에 聲聞乘을 이루고, 또 上品 십선도는 닦음이 청정하며 다른 이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깨닫는 연고로, 대비방편이 아직 구족하지 않는 까닭에 깊이 인연법을 깨달아서 獨覺乘을 이루고, 또 上品 십선도는 닦음이 청정하여 心廣이 무량하며, 대비가 구족하고 방편으로 섭수하며, 대원을 발생하여 중생을 버리지 아니하며 諸佛의 大智를 희구하며 맑게 보살의 諸地를 다스리고 청정히 일체 바라밀을 닦는 연고로 보살의 광대행을 성취하며, 또 이 上上品의 십선도는 일체가 청정하며 내지 10力 無畏를 증득한 연고로 일체 佛法을 다 성취함을 얻나니라.[20]

또한 『화엄경』에는 이어서 보살은 일체 중생에게 慈悲心, 守護心, 攝受心, 自己心등 10종 심을 일으켜서 끝없는 중생을 향한 연민의 마음을 일으키고 惡緣의 중생을 이끄는 방편으로서 십선도를 淨戒로서 護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21]

3) 十住毘婆沙論의 계학

『華嚴經』「十地品」을 주석한 論書로서는 『十住毘婆沙論』과 『十地經論』[22]이 있는데, 『十

19) 『智德經』(상동·466中)
20) 『화엄경』(大正藏 10·185下)
21) 『화엄경』(상동·186上~中)

住毘婆沙論』에서는 이 십선도의 수행 단계를 설한 부분이 「분별성문벽지불품」과 「대승품」이다. 특히 「대승품」에서는 십선도를 수행하면서 성문승과 벽지불승을 뛰어넘는 수승한 수행법으로 '一心修行과 常修行'을 들고, 自利利他의 수행을 강조하며 일체 중생을 이익되고 편안케하는 회향을 성취하는 것이 곧 보살의 십선도행이라고 설한다.[23]

『十住毘婆沙論』은 십지중 初歡喜地와 제2 離垢地만을 주석하고 있는데, 제1 환희지를 주석한 「淨地品」중에 이미 初地에 들어간 보살이 다시 보살지를 다스리기 위한 수행의 자세를 설하는 게송 중에 "諸佛家를 더럽히지 말아야 하며 부처님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고 경책하고 있다. 여기에서 부처님을 속이지 않는 다는 것은 곧 佛戒를 받고 戒를 잘 護持하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을 속이는 것이 되며, 곧바로 부처님의 家系를 더럽히는 것이 되는데, 그 이유는 戒를 받는 그 순간에 곧 佛家에 태어나는 것이 되므로 破戒하면 곧 부처님을 속이는 것이며 나아가 佛家를 더럽히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24] 그리고 이 보살이 破戒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문답을 두어서 설명하고 있다.

> 물음이라, 必定보살에게 破戒함이 있는가.
>
> 답함이라, 번뇌를 끊지 아니함이 이 일이 가히 두려우니, 오래지 않아 必定에 들어갈 보살에게 혹 破戒함이 있으니 크게 수승한 佛法中에 설함과 같나니라. 難陀인 연고로 破戒이니, 나는 이 일로서 더욱이 두려움을 삼는다. 다만 經에 이 일이 있 나니 佛語를 믿는 연고로 마음으로 곧 信受하나니라. 만약에 戒를 받고 破하지 아니하고 諸佛을 속이지 아니하면 佛家를 더럽혔다고 말하지 않나니라. 다시 다음에 戒를 이름하여 三學이라 이름하나니, 戒學, 心學, 慧學이라. 이 學을 破하면 곧 佛家를 더럽힘이니, 如法히 受戒하고 뒤에 헐어 파함이 곧 부처님을 속이는 것이 되나니라. 이와 같은 二句가 각각 義趣가 있으니 부처님을 속인 자는 스스로의 發願이 공허하며 說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여 중생을 속이고 현혹되게 하면 이것이 곧 부처님을 속임이 되며, 다시 일체법 가운데에 說과 같이 행하지 아니함이 곧 부처님을 속임이 되나니라.[25]

---

22) 이 두 논서는 인도의 論師가 『십지경』을 주석한 귀중한 자료이다. 특히 『십주비바사론』은 십지중 초지 에서 제2지까지의 주석으로서 전체를 35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초 환희지와 제2리구지의 주석이다. 이 35품의 구성 중에 제28「分別二地業道品」부터 『십지경』제2離垢地를 주석하고 있다. 각 품의 명칭인 「호계품」, 「助尸羅果品」, 「讚戒品」, 「戒報品」 등의 명칭을 보아도 계학에 중점을 두고 제2리구지를 주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十住毘婆沙論』은 십지 전체의 주석은 아니라 하더라도 몇 안되는 용수보살의 저서로 되어 있는 논서로서 중요한 자료이다. 이 용수보살의 저작에 대해서는 平川彰박사등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十住毘婆沙論の著作につ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 제5~2호, 1957년 참고)

23) 『十住毘婆沙論』(大正藏 26 · 102上)

24) 『十住毘婆沙論』(大正藏 26 · 29下)

위의 인용한 글에서 보는 바와 같이 破戒가 곧 佛家를 더럽힘이 되고 戒를 곧 三學이라 하여 삼학의 바탕을 戒學에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論에서는 다시 善行을 淸淨이라 이름하고 모든 行은 곧 持戒라하여 청정한 지계를 차제로 실행하며 이러한 지계와 더불어 7法이 화합함을 곧 善行이라고 설함으로써 善行의 근본을 持戒에 두고 있는 것이다.[26] 이처럼 『十住毘婆沙論』은 戒學을 근간으로 하여 보살 十地를 주석하고 있음을 우선 살필 수 있다.

다음에 제2 離垢地를 주석한 부분은 「護戒品」, 「解頭陀品」, 「助尸羅果品」, 「讚戒品」, 「戒報品」 등 다섯 품으로 나뉘어져 있다. 각 품의 명칭을 통하여 보더라도 제2지는 戒學을 중심 과제로 삼아서 주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제1 「호계품」중에서 『寶頂經』[27] 「화합불법품」의 경문을 인용하여 65종 尸羅바라밀분을 설한다. 즉 65종의 尸羅란,

> 不惱一切衆生, 無劫盜想, 不着外色, 不誑衆生, 不兩舌, 無惡口, 無散亂語, 無貪取, 無瞋惱, 正見, 信佛, 信法, 信僧, 供養禮敬, 戒不羸弱, 不毁戒, 戒不缺損, 不雜戒, 不濁戒, 自在戒, 聖所讚戒, 易行戒, 不可呵戒, 善護戒, 名聞戒, 少欲戒, 知足戒, 遠離戒, 阿蘭若戒, 具足聖種戒, 頭陀戒, 隨說行戒, 慈戒, 悲戒, 喜戒, 捨戒, 自見過戒, 不錯戒, 攝善戒, 布施戒, 忍辱戒, 精進戒, 禪戒, 智慧戒, 求多聞戒, 親近善知識戒, 離惡知識戒, 不貪身戒, 不信命戒, 不悔戒, 不假僞戒, 無熱戒, 無憂戒, 無慢戒, 不戲調戒, 不自高戒, 有羞戒, 調善戒, 寂滅戒, 隨所教戒, 教化衆生戒, 護法戒, 一切願滿戒, 至佛法戒, 得佛三昧戒[28]

등의 명칭을 나열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이밖에 '生戒,' '戒力,' '戒淨,' '戒差別'을 말하는데, 生戒에는 몸을 좇아서 짓는 4종과 입으로 좇아서 짓는 4종계를 합하여 여덟 종류의 生戒를 말하고, 이는 다시 몸(身)과 입(口)과 마음(心)으로 벌어져서 마침내는 120종의 生戒가 있다고 설한다. 戒力과 戒淨은 戒行의 힘과 청정함에 의해서 戒行이 더욱 힘을 얻

25) 『十住毘婆沙論』(大正藏 26 · 29下~30上)

26) 『십주비바사론』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善行命淸淨 諸行名持戒 淸淨持戒次第而行 是持戒與七法和合故名爲善行 何等爲七 慚 愧 多聞 精進念 慧 淨命淨身口業 行此七法 具持諸戒 是名善行諸行(大正藏 26 · 231中)

27) 『寶頂經』은 경전 목록에는 두 종류의 명칭이 보일 뿐, 경전 자체는 전하여지지 않고 있다. 첫 번째는 1권 『寶頂經』으로서 疑僞經에 분류되어 『出三藏記集』제5권, 『法經錄』(衆經目錄)제2권 등에 보이고, 두 번째는 5권『寶頂經』으로서 宋의 竺法眷의 번역으로 되어 있으나 전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에 인용하고 있는 「화합불법품」을 대조해 보기가 어렵다.(『佛書解說大辭典』 제10권, 1932, p.152, 大東出版社참조)

28) 『십주비바사론』(大正藏 26 · 109下~110上)

고 청정해짐을 의미한다. 끝으로 戒差別이란 有漏戒와 無漏戒의 차별이 있음을 먼저 설하고 尸羅에 대한 범위나 깊이를 여러 단계로 밝히고 있다.

첫째는 일체법을 다 친근 수습하여 실행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은 다 尸羅라고 하며, 다음으로 我와 我所를 여여서 일체 無所得을 성취함은 上尸羅가 된다고 하고, 이 일체법 無所得의 戒學 정신에 대해서는 『迦葉經』[29]을 經證으로 이끌어서 일체에 걸림이나 분별을 여의었으며 一心相이며 不住, 不貪着의 경지에 머무는 것을 '菩薩最勝無上尸羅'이며 '菩薩無盡尸羅'[30]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持戒의 差等에 대해서는 『大智度論』에서도 "上持戒는 不着 不倚 不缺 聖所讚 등의 戒를 가지고 중생을 慈愍히 여겨 제도하고 戒의 實相을 체달하여 구경에 佛道에 이르는 것이며, 中持戒는 벽지불과를 얻고, 下持戒는 아라한과를 얻는다"[31]고 한다. 다음에 「助尸羅果品」에서는 '尸羅淸淨' 곧 戒淸淨法을 助道法으로서 설하고 있다. 戒를 청정히 한다는 것은 三業을 청정히 함과 동시에 四相에 머무르지 않고 法空을 체득하여 살바야에 회향하며, 내지는 我와 我所, 斷常의 二見을 여의고 衆緣法을 체달하여 中道에 머무는 것이 참으로 尸羅를 청정히 가지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찬계품」에서는 尸羅가 일체 공덕의 근본이 됨을 종종의 비유를 들어서 설하고 있다.

또한 「助念佛三昧品」에 있어서도 재가보살의 삼매행법으로는 20법을 거론한 가운데에 五戒와 十善道가 있고, 출가보살의 삼매행법으로 60행법을 설함에 있어서는 戒를 잘 受持하여 破戒를 경계하는 戒目으로부터 특히 구족계의 바라제목차계를 행법으로 들고 있다.[32] 이는 부파교단의 계율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으로서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따라서 『십주비바사론』에 있어서는 대승보살에 재가와 출가를 나누고 출가보살의 행법속에 기존의 부파교단의 계율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

29) 여기에서 인용하고 있는 『迦葉經』이란 『佛說迦葉禁戒經』을 지칭함이 아닌가 한다. 『가섭금계경』에 보면 집착심을 가지고 持戒를 자처하는 네종류의 잘못된 持戒人을 나눈 다음에 참다운 禁戒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한다.

禁戒無形 不着三界 無常無吾我無人 無命無意無名無稱 無化無敎作者 無所從來 無所從去…亦無戒亦無所念 亦無敗壞 是名爲禁戒(大正藏 24· 912下)云云의 부분이 의미적으로 매우 상통하는 점이 있음을 지적 할 수 있다.

30) 『십주비바사론』(大正藏 110下~111上)

31) 『지도론』(大正藏 25 · 153中, 160下). 이와같은 戒目은 『마하반야바라밀경』의 수처에 보인다. 예를 들면「一念品」(大正藏 8 · 387下), 「六喩品」(상동 · 390中)등 참조.

32) 『십주비바사론』(大正藏 26 · 87上)

4) 기타 화엄경류의 계학

화엄경류의 경전에는 『等目菩薩所問三昧經』이나 『여래흥현경』등이 있으나, 戒學에 관한 부분은 특별히 지적할 사항이 없고 다음에 「離世間品」의 古譯인 竺法護의 『度世品經』에서는 먼저 '菩薩禁戒'에 十事가 있음을 설한다. 경문의 글을 살펴보자.

> 菩薩禁戒에 十事가 있으니, 무엇을 일러 十이라 하는가. 道心을 버리지 아니함이며, 성문 연각의 뜻을 버림이며, 일체 중생의 愍行을 관찰함이며, 群萌을 開化하여 佛法에 머무르게 함이며, 보살이 응당히 배울 바 것을 奉修함이며, 일체법이다 不可得임을 깨닫는 것이며, 지을 바 德本을 至道에 勸助케 함이며, 일찍이 諸佛身에 猗着하지 아니하며, 능히 諸法 또한 의지할 바 없음을 깨달으며, 諸根을 濟護하여 禁戒를 삼음이라.[33]

위의 인용문을 통하여 『화엄경』 「離世間品」에서의 보살 禁戒의 내용을 살필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일체의 佛所에서 梵行을 修行하여 淨戒를 護持하여 버리지 않는 深大心"을 보살은 갖춘다고 말함으로서 보살은 菩提를 成滿하려는 深遠한 마음을 위시하여 제불께 공양하고 일체 중생을 버리지 아니하며 대승의 수승한 공덕을 다 성취하겠다는 10종의 深大心을 갖춘다는 가운데에도 淨戒를 護持하려는 서원이[34]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도세품경』에 보살의 「十行道嚴淨」이라는 제목으로 '十淨路'를 설하는 第八淨路에서 보살은 身口意삼업을 청정히 함은 물론이려니와, 어리석은 중생 앞에서 여래의 청정 禁戒를 나타내어 제도하며 모든 삼악도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중생과 더불어 함께 함을 설하고 있다.[35] 『화엄경』에 의하여 이 부분을 다시 살펴보면, 보살은 항상 3業을 청정히 하고 戒를 범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일부러 모든 어리석은 행동을 저지르고 3악도에

---

33) 『도세품경』(大正藏 10 · 619上), 이 부분에 대응되는 80『화엄경』의 「리세간품」의 경문은 다음과 같다.

佛子, 菩薩摩訶薩 有十種戒 何等爲十 所謂 不捨菩提心戒, 遠離二乘地戒, 觀察利益一切衆生戒, 令一切衆生住佛法戒, 修一切菩薩所學戒, 於一切法無所得戒, 以一切善根廻向菩提戒, 不着一切如來身戒, 思惟一切法離取着戒, 諸根律儀戒(大正藏 10 · 281上), 60『화엄경』에서는 대략 동일한 내용이나 十種戒중 끝의 2戒가 제외 된 8종계뿐이다.(大正藏 9 · 633下)

34) 『화엄경』(大正藏 10 · 287中)

35) 『도세품경』(大正藏 10 · 641中)의 이 부분은 80『화엄경』에서는 「十種莊嚴道」라 이름한다. 이에 대응되는 경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常善護持如來淨戒 身語意業 無諸過失 爲欲敎化犯戒衆生 示行一切凡愚之行 雖已具足淸淨福德 住菩薩趣而示生於一切地獄畜生餓鬼 及諸險難貧窮等處 令彼衆生皆得解脫 而實菩薩不生彼趣是爲第八莊嚴道(大正藏 10 · 301中)

태어나서 중생과 함께 해탈을 이루어 나아가지만, 실은 이미 菩薩趣에 머물러서 淸淨福德을 구족해 있다고 한다. 또 '菩薩十戒淸淨'을 설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화엄경』과 같이 비교 검토해 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10종 淨戒는 6바라밀과 4무량심을 설하는 과정에서 자연히 이어지는 戒바라밀의 淸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앞의 제2離垢地에 있어서의 戒바라밀과 그 내용을 비교하여 검토 할 수 있다.

<표4>

『度世品經』(大正藏 10 · 645上)	80『華嚴經』(大正藏 10·305上/9·660上)
身行淸淨, 護其三事	身淸淨戒, 護身三惡故
口言淸淨, 棄口四過	語淸淨戒, 離語四過故
捨心三穢, 無瞋恚癡	心淸淨戒, 永離貪瞋邪見故
將養禁戒, 一切無犯見有過者, 隨時安之消貪欲業去恚愚冥, 其德照明天上世間	不破一切學處淸淨戒, 於一切人天中作尊主故
守於道心, 思樂大乘	守護菩提心淸淨戒, 不樂小乘故
奉諸如來而學正教, 而無爲戒默隨律禁	守護如來所制淸淨戒, 乃至微細罪生大怖畏故
除諸衆生, 殃孽衆罪	隱密護持淸淨戒, 善拔犯戒衆生故
遠離衆惡, 順從一切衆德之本	不作一切惡淸淨戒, 誓修一切善法故
斷衆邪見, 不以禁戒而懷自大	遠離一切有見淸淨戒, 於戒無着故
撫育群黎, 遵大哀力	守護一切衆生淸淨戒, 發起大悲故

『度世品經』 및 「離垢地」에 있어서의 10종 청정계는 戒學의 기본 정신은 「離垢地」와 크게 다르지 아니하나, 「離垢地」의 十善道 戒學이 身 口 意삼업을 청정히 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 있음에 비하여, 『도세품경』 및 「離世間品」에서는 삼업의 청정을 기본 골격으로 하면서도, "여래의 일체 학처를 지키고 大乘에 나아가서 일체 善法을 수행하면서도, 有見에 취착함이 없이 大悲心을 일으킨다"는 보살 사상이 크게 강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菩薩 戒學을 실천할 때에 여래의 無上이며 無過失의 淸淨戒를 수지함이 된다고 설한다. 그리고 또한 戒를 香氣에 비유하여 여래의 공덕을 찬탄할 때에 戒香으로써 스스로 훈습하고 寂然의 德으로 장엄한다는 등의 표현을 볼 수 있다.[36]

이밖에 『화엄경』「離世間品」에는 4무량심을 설하는 가운데에 보살의 10종喜의 제3이 "不嫌棄破戒衆生而敎化成就淸淨喜"[37]라하여 보살은 破戒衆生을 싫어해서 버리지 않는 것이 喜의 수행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또한 10종 魔業중에 "惡한 마음으로 보시하거나 성내는 마음으로 戒를 가지는 것"[38]은 다 바른 行이 아닌 魔業에 들어간다고 설하고 있다.

끝으로 「입법계품」에 대응되는 『羅摩伽經』[39]은 長子, 比丘尼, 女人, 菩薩, 夜天神, 地神 등 12명의 선지식이 선재동자에게 각자 깨달은 바 법을 설해 주는 매우 간략한 「입법계품」의 원형경전이다. 이 경전에서 戒學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면, 경의 처음에 위요보살중을 찬탄하는 경문 속에 "心戒를 받아서 모든 功德을 갖추었다"[40]고 하며, 사자분신비구니의 威德을 찬탄하는 글에서 "사자왕과 같은 위덕으로 安住不動하며 無相戒를 성취한 연고로 마음이 청정하여 모든 번뇌를 除滅함은 향기의 왕이 나쁜 냄새를 다 없앰과 같

---

36) 『도세품경』에 보면,

其身等如空 其名聞三世 戒香衣自勳 寂然德莊嚴,(大正藏 10 · 658中)

戒香爲淸淨 動靜爲最上 身心遊言辨 心慧爲最勝(상동, 657下)

其戒香淸淨 完具無缺漏 以淨塗法香 慧布於三處(상동, 655上)

慈濡愍爲根 護禁仁爲莖 尊勳慧華葉 戒香甚淸淨(상동, 654上)등 戒를 香氣에 비유하여 표현한 경문 등을 볼 수 있다.

37) 『화엄경』(大正藏 10 · 306上)

38) 『화엄경』(상동, 307上)

39) 『羅摩伽經』은 388-407년간에 西秦沙門聖堅이 번역한 것으로 『화엄경』 「입법계품」의 가장 간략한 문헌으로서 抄譯 내지는 不完全한 번역이 아닌가 추측한다. '라마가'라는 經의 명칭은 선재동자가 성취한 '毘羅摩伽三昧'(大正藏 10 · 876上)에서 얻어진 이름으로 추측한다. 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12명의 선지식과 그들의 법문으로 이루어 져 있으며, 다음과 같다.

제 1 善勝長者 ---------- 大慈悲喜捨對治滅相擊音聲菩薩喜幢法門

제 2 師子奮迅比丘尼 ---------- 一切種智普能開現無底菩薩法門

제 3 婆須蜜多女 ---------- 億無染離欲莊嚴無着法門

제 4 不憍高貴德王長者 -------- 不生不滅實際莊嚴平等菩薩法門

제 5 觀世音菩薩 ---------- 大悲淸淨毘羅摩伽菩薩光明法門

제 6 無異行菩薩 ---------- 菩薩普現速行法門

제 7 大天天子 ---------- 菩薩雲網光明法門

제 8 安住地神 ---------- 菩薩不可破壞智慧藏法門

제 9 婆裟婆陀夜天 ---------- 菩薩光明普照諸法壞散衆生愚癡破魔法門

제10 普賢甚深微妙功德離垢光明夜天---菩薩寂滅定樂精進法門

제11 喜目觀察衆生夜天 -------- 毘羅摩伽菩薩幢法門, 普照十方光明法海三昧

제12 普覆衆生威德夜天 -------- 調伏一切衆生律儀示現莊嚴法門, 普智炎毘羅摩伽圓滿明淨三昧

40) 『라마가경』(大正藏 10 · 852中)

다"[41]고 설하는 중에 '無相戒'라는 용어가 보인다. 또 희목관찰중생야천의 10바라밀 법문 중에 "不可思議한 尸羅바라밀에 머물러서 제불의 淸淨禁戒를 받아서 일체 중생을 戒香으로써 향기롭게 한다"[42]고 하며, 또한 "尸羅바라밀을 실천할 때에는 하나 남은 눈을 보호하듯이 하여 어떠한 고난에 처하더라도 제불의 청정 禁戒를 버리지 아니함이 보살의 시라바라밀을 실천함[43]이라고 설함을 볼 수 있다.

이상으로 「입법계품」에 대응되는 『라마가경』의 戒學을 살펴보았다. 『라마가경』이나 「입법계품」에서는 戒學이 중심 과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체 보살행 가운데에 또한 제외될 수 없는 실천행이며 戒行은 곧 보살행과 동일한 선상에서 설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나아가서는 '心戒' '無相戒' '虛空戒' 등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계학 역시 空行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그리고 『입법계품」에 보이는 戒의 20명칭은 뒤에서 戒의 명칭에 대해서 고찰할 때에 다시 검토해 보기로 한다.

2. 화엄경 관련 경전의 계학

1) 佛說菩薩內戒經의 계학

『菩薩內戒經』(이하『內戒經』)은 菩薩十住를 설하고 있는 점에서 『兜沙經』 『諸菩薩求佛本業經』 『菩薩本業經』 『菩薩十住行道品經』 『菩薩十住經』 『菩薩內習六波羅蜜經』등과 서로 관련이 있는 경전[44]으로서 戒學을 기본으로 다룬 경전임과 동시에 화엄경류의 부속 경전으로서 취급되어지고 있다.[45] 따라서 화엄경류의 戒學을 고찰함에 있어서 관련 경전으로서 『보살영락본업경』(이하『瓔珞本業經』)과 함께 戒學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內戒經』은 그 내용이12時의 說法과 十住位로 구성되어 있다. 初發意보살이 6바라밀을 수행함에 있어서 半月의 布薩日에 12時의 설법으로 형식화하였고, 그리고 이러한 수행의 공덕으로 보살은 十住位를 얻는다 하여 끝부분에 보살 十住의 명칭을 들고 있다. 곧 十住位의 수행과 菩薩戒學이 서로 관련지어진 경전이라고 볼 수 있다.

經의 처음은 먼저 三歸依와 보살, 마하살, 문수사리보살, 마하반야바라밀에 自歸할 것을 설함으로써 歸依의 대상을 결정하는 가운데에 자연히 6바라밀 중에 반야바라밀을 근

41) 『라마가경』(상동, 855中)

42) 『라마가경』(상동, 869中). 『화엄경』 「입법계품」에서는 '住諸佛境 持如來戒'(대장경10 · 373下)라고 표현하고 있다.

43) 『라마가경』(상동, 870下)

44) 『佛書解說大辭典』제9권, 1932, pp.407~408, 大東出版社.

45) 大野法道, 앞의 책, pp.154~156 참조

본에 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內戒經』의 계학으로는 제2時중에 47戒를 尸羅로서 받아 지님을 열거하고 있음이 특이하다. 47戒의 명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一者 菩薩不得殺生 身口意不得念殺生 念殺生者不得爲菩薩也
二者 菩薩不得盜他人財物
三者 菩薩不得淫妖他人婦女
四者 菩薩不欺怠人
五者 菩薩不得飮酒
六者 菩薩不得兩舌
七者 菩薩不得惡口
八者 菩薩不得妄語
九者 菩薩不得綺語
十者 菩薩不得嫉妬
十一者菩薩不得嗔恚
十二者菩薩不得癡疑
十三者菩薩不得信邪魔道
十四者菩薩不得持惡行敎人
十五者菩薩當廣方便益布施
十六者菩薩不得慳貪
十七者菩薩不得貪利他人財物
十八者菩薩不得邪心賊害人
十九者菩薩不得讒擊人
二十者菩薩不得撾捶人
二十一者菩薩不得掠取良民作奴婢
二十二者菩薩不得販賣奴婢
二十三者菩薩不得賣妻子與人
二十四者菩薩不得男女更相淫戲
二十五者菩薩不得至博戲婬女舍
二十六者菩薩不得至黃門家
二十七者菩薩不得相欺詐
二十八者菩薩不得持重稱侵人
二十九者菩薩不得持輕稱欺人
三十者菩薩不得持大斗侵人
三十一者菩薩不得持小斗欺人

三十二者菩薩不得持長尺侵人
三十三者菩薩不得持短尺欺人
三十四者菩薩不得斷棄牛馬五陰
三十五者菩薩不得賣牛馬
三十六者菩薩不得賣象駝
三十七者菩薩不得賣騾驢
三十八者菩薩不得賣猪羊
三十九者菩薩不得賣鷄犬畜生
四十者菩薩不得賣經法
四十一者菩薩不得至邪魔道家
四十二者菩薩不得至擔死人種家
四十三者菩薩不得死喪家
四十四者菩薩不得入酒舍
四十五者菩薩不得入羹飯舍
四十六者菩薩得人飯時心念言, 我何時當普施與人, 令飽滿如我今日
四十七者菩薩相見心當歡喜, 如見父母兄弟, 見他人亦爾無異, 若見人作菩薩道行, 當等心視之, 不得言某人善某人惡[46]

이상이 『內戒經』의 47戒의 명칭이며, 보살은 스스로도 지켜야 할 뿐만아니라, 다른 이에게도 권해서 범하지 않게 해야한다고 하며 이 47戒를 굳게 가질 때, '不退轉位'와 '補處位'와 '作佛'을 얻게 된다고 설한다. 여기에 열거한 戒의 명칭들은 「十善道戒」, 『涅槃經』의 「四禁性重戒」와 「四十息世譏嫌戒」[47], 『菩薩地持經』의 4重43犯事[48], 그리고 『梵網經』의 10重 48輕戒[49]등과 연관을 갖는 것으로서 大乘戒條의 古形을 나타내는 것으로 본다. 또한 위의 戒目들을 내용별로 분류해 보면,

---

46) 『內戒經』(大正藏 24 · 1029中)

47) 『涅槃經』「聖行品」에 보살의 2종계로서 '受世教戒'와 '得正法戒'를 들고, 다시 2종계를 설한 것이 '性重戒'로서 '四禁戒'와 '息世譏嫌戒'로서 40계를 들고 있다.그 식세기혐계의 내용이 많은 부분에서 『內戒經』의 47계와 상통하는 의미이다.(大正藏 12 · 432下, 674中)

48) 『菩薩地持經』은 「菩薩地持論」 『菩薩戒經』라고도 하며, 『瑜伽師地論』의 「本地分」중의 <菩薩地>와 同本이다. 본경 「방편처 계품」에 대승 계학을 총괄하려는 목적으로 일체 계율을 9항으로 조직하고 4바라이와 42犯事, 및 三聚淨戒를 설하고 있으므로 대승계학의 경전으로서 중요시되어 왔다. (大正藏 30 · 913中~, 다만 『유가사지론』의 「보살지」에서는 43범사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분류는 大野法道, 앞의 책 pp.200~203참조)

49) 『梵網經』(大正藏 24 · 1004中~)

제1은 오계, 십선 등의 선악 행위의 경계.
제2는 정당하지 않은 계량 기구로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의 경계.
제3은 사람 및 짐승 등의 매매 금지.
제4는 타인을 구타하거나 침해를 가하는 일을 경계.
제5는 도박, 외도, 술집등 부정한 집에 출입의 경계.
제6은 다른 이를 염려하는 자애심을 가질 것을 권장.

하는 등으로 나누어서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內戒'라는 의미에 대해서 '菩薩戒'는 안을 경계하는 것으로서 밖을 경계함이 아니며, 보살의 外行은 굳은 大地와 같고 內戒는 맑은 물과 같아서 대지와 물이 초목을 기르듯이 보살의 대지와 같은 공덕행과 청정계행으로서 일체 공덕을 증장한다고 설한다.

2) 菩薩瓔珞本業經의 계학

『瓔珞本業經』은 화엄경류의 원시 경전인 『菩薩本業經』을 所依로하여 중국에서 성립된 경전으로 본다. 본 경전을 화엄계 경전으로 보는 이유는, '佛의 本業인 瓔珞功德'의 내용이 곧 十住, 十行, 十廻向, 十地, 無垢地, 妙覺地의 42위 보살 수행 계위[50]를 설하는 것이 바로 『화엄경』의 「十住品」 등 보살계위와 대응되기 때문이며, 뿐만 아니라 본 경은 '十不可悔戒'로서 『梵網經』의 '十重戒'와 '三聚淨戒' 및 受戒의 '三種受'를 설하는 까닭에 戒學의 경전으로서도 평가되어 결국은 『화엄경』의 菩薩의 修行階位 사상과 『범망경』의 戒學 사상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경전으로서 의의를 가지고 있다. 또한 가까이로는 『영락본업경』의 모태가 된 것은 『보살본업경』으로서 「集衆品」제1과 「賢聖名字品」제2에서 그 맥락을 찾을 수 있다.[51]

그리고 『瓔珞本業經』이 戒學의 경전으로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天台大師 智顗(538-597)가 그의 『梵網經』 주석서인 『菩薩戒義疏』중에서 『瓔珞本業經』의 三聚戒를 인용하고 있으며,[52] 『摩訶止觀』에서는 道에 나아가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五緣중에 제1의 '持戒淸淨'을 해석하는 가운데에 『瓔珞本業經』의 "心無盡故戒亦無盡"[53]이라는 경문을 인용하고 있으며, 『瓔珞本業經』의 전편에 보이는 三諦三觀思想은 『摩訶止觀』에서의 '空觀

50) 『영락본업경』(大正藏 24 · 1010中)
51) 『영락본업경』첫 부분의 '佛之本業'으로서의 보살계위와 이어서 10불찰 명호, 및 『보살본업경』「願行品」제2의 134願을 축소하여 24願으로 요약하고 있는 등은 바로 두 경전의 연관성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다.
52) 『菩薩戒義疏』(大正藏 40 · 563下)
53) 『摩訶止觀』(大正藏 46 · 36中)

持戒' '假觀持戒' '中觀持戒'[54] 등의 사상을 정립하는 데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화엄종의 賢首法藏(643-712)이 『梵網經』을 주석하는 가운데에 많은 부분에서 『瓔珞本業經』을 중시하여 인용하고 있음을 보며[55], 본 경의 주석서로는 오직 元曉(617~686)의 『瓔珞本業經疏』下卷[56]만이 현존하고 있다.

『영락본업경』의 戒學思想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瓔珞本業經』은 戒學의 시작을 다른 대승계학과 마찬가지로 '三業의 淸淨'으로부터 시작하여 三寶의 가르침을 익혀서 '因果를 信向'함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57] 그리하여 초발심보살이 제1住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0順의 名字로서 10종心을 갖출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곧 10종 信心이며 天台智顗는 이 10信을 더하여 『瓔珞本業經』의 52位를 보살계위의 가장 잘 정돈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58] 본 경의 「賢聖名字品」에서는 특히 10信과 24願을 설한 다음에 곧 이어 '十不可悔戒'를 설하니 이것이 곧 『범망경』의 10重바라이와 동일한 내용이다.[59] 만약에 보살이 이 10바라이를 지키지 아니하면 보살계위를 모두 잃어버림으로 이 戒야 말로 一切佛과 一切菩薩行의 근본이 되며 이 10戒法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賢聖의果位를 얻지 못한다고 단언해 말하고 있으나 48輕戒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그리고 『瓔珞本業經』권하에서 다시 앞의 10종 信心을 들고 10心으로서 十善法, 五戒, 八戒, 十戒, 六波羅蜜戒를 들고 있다.[60]

다음에 「因果品」에서 10바라밀을 설하는 가운데에 "戒에 3緣이 있으니 제1은 自性戒이며 제2는 受善法戒이며 제3은 利益衆生戒이다"[61]라고 설하는데, 이는 곧 三聚淨戒의 골격으로서 三聚淨戒는 一切戒의 근본이 된다고 하고 그 삼취계의 내용으로서 '三受門'을 설하는데, 攝善法戒는 팔만사천 法門을 내용으로 하고, 攝衆生戒는 慈悲喜捨로 교화하여 일체 중생에게 다 安樂을 얻게 함이라 하고, 攝律儀戒는 十波羅夷로서 정의하고 있다.[62]

---

54) 『摩訶止觀』에서 「明持戒」를 해석하는 가운데에 三觀持戒를 말하고 있다.(大正藏 46 · 37上)

55) 法藏, 『梵網經菩薩戒本疏』(大正藏 40 · 602下~603上)

56) 元曉, 『瓔珞本業經疏』(대일본속장경제61-3책), 『本業經疏』(한국불교전서 제1권, 498~523)

57) 『瓔珞本業經』(상동, 1011中)

58) 智顗는 『法華經玄義』권4下에서 "瓔珞五十二位 名義整足 恐是結諸大乘方等別圓之位 仁王般若明五十一位 恐是結成前四時般若別原之位也(大正藏 33 · 731下)

59) 경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佛子 有十不可悔戒 應受應持 一不殺人乃至二十八千諸佛菩薩 二不盜乃至草葉 三不婬乃至非人 四不妄語乃至非人 五不說出家在家菩薩罪過 六不沽酒 七不自讚毁他 八不慳 九不瞋乃至非人 十不謗三寶(大正藏 24 · 1012中)

60) 『瓔珞本業經』(상동, 1017上), 元曉의 『本業經疏』에서는 十善道는 遮十惡이며 五, 八, 十戒는 攝律儀戒에, 六波羅蜜은 攝善法戒에 대응시키고 있다.(『한국불교전서』제1권 508上)

61) 『瓔珞本業經』(상동, 1019中)

그리고 이것이 곧 『瓔珞本業經』의 三聚淨戒의 내용의 특색이며 『梵網經』의 戒學과 三聚淨戒를 연결시켜서 대승보살계로 정립시킨 중요한 계기가 되는 부분이다.[63]

다시 「大衆受學品」에서는 "일체 중생이 처음 三寶의 바다에 들어가는 데에는 信으로써 근본을 삼고, 佛家에 머물러 있음에는 戒로서 근본을 삼는다"는 유명한 경문[64]에 이어서 受戒의 자격과 方法을 논하고 있는데, 수계의 자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 佛子여, 始行菩薩이 만약에 信男信女중에 諸根이 不具이며 黃門, 婬男婬女, 奴婢, 變化人이라도 戒를 受得하나니 다 마음으로 向함이 있는 연고라. 처음 發心出家하여 菩薩位를 잇고자 할진댄 마땅히 먼저 正法戒를 받을지니 戒란 이 一切行功德藏의 근본이며 바로 佛의 果道에 향하는 一切行의 근본이니, 이 戒가 능히 일체 大惡인 七見 六着을 除함이니, 다 正法의 밝은 거울이 되나니라.[65]

또한 이어서, 受戒에는 3종의 受戒가 있다고 하여 수계의 방법을 말하는데,

> 첫째 '眞實上品戒'는 諸佛菩薩의 現前에서 受戒하는 것이고,
> 둘째 '中品戒'는 제불보살 멸도 후에 천리 내에 먼저 戒를 받은 이를 法師로 청하여 敎授師를 삼아서 受戒하는 것이며,
> 셋째 下品戒는 천리 내에 法師가 없을 때에 佛菩薩의 形像앞에서 호궤합장하고 自誓受戒하는 것[66]

이라고 설한다. 위의 경문에서는 여러 가지 受戒방법[67]에 있어서, 大乘菩薩戒의 '自誓受

---

62) 『瓔珞本業經』(상동, 1020下)

63) 여기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대소승계학을 총괄할 목적으로 편찬되었다고 보는 『瑜伽師地論』「보살지 계품」(大正藏 30 · 511상) 및 그 계통의 『菩薩善戒經』, 『菩薩地持經』(大正藏 30 · 910中)등에서는 律儀戒에 비구비구니, 식차마니, 사미사미니, 우바색우바이 등의 7衆이 받을 바 종래의 계율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에 비하여 『瓔珞本業經』은 범망경』의 10중바라이로 律儀戒의 내용을 삼는 것이 다른 점이다. 이는 곧 瑜伽戒 계통의 대소승계를 총괄하려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대승보살계를 별도로 정립하려는 의도로서 해석한다.

64) 『瓔珞本業經』(상동, 1020中)

65) 『영락본업경』(大正藏 24 · 1020中)의 이 대목은 율장의 승단의 권위를 지키기 위하여 10遮와 13難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출가를 제한하였던 것에 비하면 수계 자격의 커다란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범망경』에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法師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이는 다 戒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설하고 있다.(大正藏 24 · 1004中)

66) 『영락본업경』(상동, 1020下)

67) 受戒의 방법에 있어서는 『摩訶僧祇律』의 者具足, 善來具足, 十衆具足, 五衆具足(大正藏 22 · 412

戒'가 인정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이는 『범망경』[68]에서도 볼 수 있는 것으로, 기존의 각 律藏에서 '十衆受戒'가 강조되고 있는 것과는[69] 비교되는 부분으로서 대승보살계의 독자적인 수계의식을 강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게 하는 대목이다.

Ⅲ. 화엄경류 계학의 특성

1. 화엄계학의 명칭적 특성

1) 화엄계학의 명칭

본 항에서는 화엄경류에 있어서 계학의 명칭과 그 내용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화엄경』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戒名을 나열한 중심이 되는 각품은 다음과 같다. 즉, 「범행품」 「십무진장품」 「십회향품」 「십지품」 「리세간품」 「입법계품」등이다. 「정행품」 및 「십지품」의 계학에 관해서는 앞에 '화엄경류의 원형경전'에서 살펴보았으므로 여기에서는 「梵行品」을 시작으로 戒에 관하여 나열된 명칭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먼저 「범행품」에서는 출가자의 범행청정을 묻는 가운데에 佛, 法, 僧, 戒에 그 무엇이 梵行인가를 묻는 경문이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 만약 戒가 이 梵行이라고 한다면, 壇場이 이 戒인가, 청정을 물음이 이 戒인가, 威儀를 가르침이 이 戒인가, 세 번 羯磨를 설함이 이 戒인가, 和尙이 이 戒인가, 아사리가 이 戒인가, 剃髮이 이 戒인가, 袈裟衣를 입음이 이 戒인가, 乞食이 이 戒인가, 正命이 이 戒인가. 이와 같이 관찰해 마치니 몸에 취할 바가 없으며, 닦음에 착할 바가 없으며, 法에 住할 바가 없음이라. 과거는 이미 멸하였고 미래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현재는 空寂하니……범행법 不可得인 연고며 삼세법이 다 공적한 연고며 뜻에 취착함이 없는 연고며

中)등 四種具足과, 『薩婆多毘尼毘婆沙』의 七種具足(大正藏 23 · 511上), 『十誦律』의 十種具足(大正藏 23 · 410上)등이 있는데, 마하가섭이 '自誓受戒'한 전례가 보인다.

68) 『범망경』(大正藏 24 · 1006下)

69) 『四分律』에 보면 '三語受戒'나 '善來具足'을 설한 다음에는 반드시 "금일로부터 十衆和合의 一白三羯磨를 제정한 이후에는 十衆구족의 수계법이 善受具足法이 된다"고 설함을 볼 수 있다. (大正藏 22 · 413上, 799下)

마음에 걸림이 없는 연고며 행하는바가 둘이 없는 연고며 방편이 자재한 연고며 無相法을 받는 연고며 無相法을 관하는 연고며 佛法이 평등함을 아는 연고며 일체법을 갖춘 연고라. 이와같음을 이름하여 淸淨梵行이라 하나니라.[70]

위의 글을 통하여 『화엄경』 「梵行品」에서의 戒를 의미하는 것은 律藏에 기초한 戒壇, 僧伽의 淸淨, 僧伽의 威儀, 一白三羯磨, 和尙, 아사리, 剃髮, 袈裟衣, 乞食, 正命 등의 형식적인 계율주의와 출가주의로서 戒를 정의하고 있으며, 진정한 화엄의 범행은 그러한 형식을 벗어난 空寂, 無執着, 無相法, 平等法이 곧 淸淨梵行이 됨을 설하고 있다. 여기에서 범행을 戒라 한다면 화엄의 戒學은 형식을 벗어난 곳에 위치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대목이다.

다음에 「十無盡藏品」에서 보살의 10종 無盡藏으로서 信藏, 戒藏, 慚藏, 愧藏, 聞藏, 施藏, 慧藏, 念藏, 持藏, 辯藏을 드는 가운데에 戒藏에서 보살의 10종 戒藏을 설명하고 있다. 즉, 饒益戒, 不受戒, 不住戒, 無悔恨戒, 無違諍戒, 不損惱戒, 無雜穢戒, 無貪求戒, 無過失戒, 無毁犯戒[71]이다. 이 10종戒藏을 그 내용의 설명과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饒益戒란 보살이 淨戒를 受持하고 본래로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함이며,

不受戒란 外道의 戒를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진하여 삼세여래의 平等淨戒를 奉持함이며,

不住戒란 보살이 이 戒를 받을 때에 마음이 三界에 머무르지 아니함이며,

無悔恨戒란 보살이 항상 重罪를 짓거나 破戒하지 않음으로 安住하여 悔恨心이 없음이며,

無違諍戒란 보살이 먼저 制定한 것을 존중하여 수순하는 마음으로 중생을 뇌롭게 하지 않고 항상 환희심을 내기를 원하는 것이며,

不惱害戒란 보살은 呪術이나 方藥을 배우지 아니하고 일체 중생을 救護하기 위하여 戒를 가지며,

不雜戒란 보살은 斷常二見을 여의고 緣起法을 관찰하기 위하여 戒를 가지며,

無貪求戒란 보살이 짐짓 異相을 지어 德있음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오직 出離法만을 추구하며,

無過失戒란 보살이 스스로 戒가짐을 자랑하거나 破戒人을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며,

---

70) 『화엄경』(大正藏 10 · 88下)

71) 『화엄경』(大正藏 10 · 111下), 60『화엄경』의 명칭을 보면, 饒益戒, 不受戒, 無着戒, 安住戒, 不諍戒, 不惱害戒, 不雜戒, 離邪命戒, 離惡戒, 淸淨戒(大正藏 9 · 475上)등이다.

無毁犯戒란 보살이 길이 殺 盜 婬 妄 貪瞋邪見을 버리고 十善道를 가지는 것이다. 보살은 이 10종계를 가지면서 이와같이 念言하나니, 일체 중생이 淨戒를 受持하지 못하는 것은 다 顚倒되었기 때문이니 오직 世尊만이 능이 중생이 전도된 이유를 아시리니 내가 마땅히 무상보리를 성취하여 널리 중생을 제도하고 眞實法을 설하여 모든 전도됨을 여의게 하리라. 이와 같이 발원함이 곧 보살마하살의 제2 戒藏이니라.[72]

위의 글에서도 戒學을 통하여 보살은 스스로 삼세제불의 平等淨戒를 수지하면서 한편으로는 중생을 향한 무한한 자비심을 성취하는 것이 戒藏의 전체 내용을 이루고 있다.

「十廻向品」에서는 보살이 香을 보시하면서 그 善根을 회향하여 일체중생이 戒香이 구족하기를 서원하면서 10종 戒를 설하고 있다. 그 10종 戒란 不缺戒, 不雜戒, 不汚戒, 無悔戒, 離纏戒, 無熱戒, 無犯戒, 無邊戒, 出世戒, 菩薩波羅蜜戒이며 이러한 戒로 인하여 일체 중생이 모두 諸佛의 戒身을 성취하기를 서원한다.[73] 「십회향품」에서는 대승계학의 대표가 되는 '三種淨戒' 혹은 '三聚淨戒'[74]의 명칭이 보인다. 3종 淨戒의 분명한 내용은 없으나 경문은 不殺등 五戒를 지켜서 중생을 두려움을 여의고 안온케 함을 의미하고 있다.

다음 「리세간품」에서는 200가지 질문을 하는 가운데에 '何等爲戒'와 '何等爲淸淨戒'라하여 두 번 戒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 있다.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5>

何等爲戒		何等爲淸淨戒	
60『화엄경』(9 · 633下)	80『화엄경』(10 · 281상)	60『화엄경』(9 · 660上)	80『화엄경』(10 · 305上)
不壞菩提心戒	不捨菩提心戒	身淨戒 防護身三惡故	身淸淨戒 護身三惡故
離聲聞緣覺地戒	遠離二乘地戒	口淨戒 遠離口四過故	語淸淨戒 離語四過故
饒益觀察一切衆生戒	觀察利益一切衆生戒	心淨戒 永離貪恚諸邪見故	心淸淨戒 永離貪瞋邪見故
令一切衆生住佛法戒	令一切衆生住佛法戒	具一切淨戒 於天人中最勝妙故	不破一切學處淸淨戒 於一切人天中作尊主故

72) 『화엄경』(大正藏 10 · 111下)
73) 『화엄경』(大正藏 10 · 136下 / 9 · 501上)
74) 『화엄경』(大正藏 10 · 149中~下 / 9 · 513上)

一切 菩薩學戒戒	修一切菩薩所學戒	守護菩提心淨戒 不樂小智故	守護菩提心淸淨戒 不樂小乘故
一切無所有戒	於一切法無所得戒	守護如來所說淨戒 乃至微細罪大怖畏故	守護如來所制淸淨戒 乃至微細罪生大怖畏故
一切善根廻向菩提戒	以一切善根廻向菩提戒	微密淨戒 善拔犯戒諸衆生故	隱密護持淸淨戒 善拔犯戒衆生故
不着一切如來身戒	不着一切如來身戒	不作一切惡淨戒 積集一切諸善法故	不作一切惡淸淨戒 誓修一切善法故
<없음>	思惟一切法離取着戒	遠離一切有見淨戒 於戒無着故	遠離一切有見淸淨戒 於戒無着故
<없음>	諸根律儀戒	守護一切衆生淨戒 出生大悲故	守護一切衆生淸淨戒 發起大悲故

위의 비교표에 의해서 「리세간품」에서의 10종계와 10종청정계의 내용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10종계'는 菩提心, 大乘, 利益一切衆生, 住佛法, 菩薩所學, 無所得, 廻向菩提, 不取着, 諸根律儀 등 대승보살계학을 성취하여 여래의 무상광대한 戒 바라밀을 성취하기 위함이며,

'10종청정계'는 三業을 淸淨히 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여 모든 惡業을 청정히 함이 근본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리세간품」에서의 계학은 菩薩道를 성취하는 것과 三業을 근본으로 惡業을 청정히 한다는 두 개의 큰 골격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화엄경』 「입법계품」에서는 허공 중에 왕래하는 제4 선지식인 善住比丘의 法門 중에 20개의 戒의 명칭이 보인다.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 善男子 我唯知此普速疾供養諸佛成就衆生無碍解脫門 如諸菩薩持大悲戒, 波羅蜜戒, 大乘戒, 菩薩道相應戒, 無障碍戒, 不退墮戒, 不捨菩提心戒, 常以佛法爲所緣戒, 於一切智常作意戒, 如虛空戒, 一切世間無所依戒, 無失戒, 無損戒, 無缺戒, 無雜戒, 無濁戒, 無悔戒, 淸淨戒, 離塵戒, 離垢戒, 如是功德而我云何能知能說[75]

이들 戒學의 명칭 역시 大乘 菩薩道에 상응하는 일반적인 모든 法門이 그대로 戒學의 명칭으로서 나열되고 있음을 본다. 특히 '菩薩道相應戒' '不捨菩提心戒' '如虛空戒' '不退墮戒'등은 곧 '衆生無邊誓願度'라는 보살의 願行 정신을 그대로 戒學의 명칭 속에 요약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선재동자가 喜目觀察衆生夜神의 처소에서 布施, 持戒, 忍辱 등의 법문을 체득하는 가운데에 계학에 관해서 설하는 경문 중에 희목관찰중생신은

75) 『화엄경』(大正藏 10 · 337中)

중생 세간의 종종 苦樂과 不淨과 無常과 顚倒 등을 떠나서 부처님의 경계에 머물고 如來의 戒를 가져서 이와 같은 戒行과 戒香으로 모든 중생에게 두루 베풀어서 성숙시킨다는 보살행을 배우고 있다.[76] 결국 『화엄경』에서 설하고 있는 戒學의 명칭들은 菩薩道의 戒行으로서 위에 든 '如來戒'라는 명칭 속에 모든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본다.

2) 三聚淨戒의 내용

三聚淨戒의 명칭과 그 사상이 가장 먼저 제시된 경전을 논할 때에, 『화엄경』「십회향품」에 보이는 三聚淨戒의 명칭과 「십지품」제2지에서의 사상적 연원을 지적할 수 있다. 먼저 「십회향품」에서는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三種淨戒' 혹은 '三聚淨戒'[77]의 명칭이 보이나 三聚淨戒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다. 그러나 布施에 이은 持戒의 내용으로서 十善道의 시작이 되는 不殺生戒를 근본으로 하여, 특히 "모든 중생이 길이 殺業을 끊는 善根에 廻向하는 것"을 三聚淨戒에 머무는 것이라고 설하고 있으며 이는 곧 「십지품」에서의 삼취정계를 정의할 때에 그 내용이 십선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서로 의미적으로 상응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삼취정계의 명확한 명칭은 「십회향품」에서 찾을 수 있으며, 삼취정계의 사상은 「십지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십지품」 제2離垢地는 戒바라밀을 근본으로 하며, 그 계바라밀의 내용은 십선도이다. 「十地品」의 주석서인 용수보살의 『십주비바사론』[78]이나, 십선도로서 總相戒를 삼고 있는 『大智度論』[79]에서는 십선도를 삼취정계에 대응시킨 해석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십지품」의 戒學의 전개를 3단계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삼취정계에 대응시켜서 註釋하고 있는 것은 世親의 『十地經論』이 처음이다. 世親이 『십지경론』에서 「리구지」의 戒學을 삼취정계에 대응시켜서 주석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보살이 이미 正位를 증득하고 出世間道의 因이 되는 청정계를 의지하여 제2보살의 리구지를 설하나니 이 청정계에 둘이 있으니 發起淨과 自體淨이라. 첫째 發起淨은 10종直心이며…自體淨에 3종戒가 있으니 첫째 離戒淨이며, 둘째 攝善法戒淨이며, 셋째 利益衆生戒淨이다. 離戒淨이란 이른바 十善業道이니 殺生을 여읨으로 좇아 내지 正見으로 또한 受戒淨이라 이름한다. 攝善法戒淨이란 離戒淨의 위에 보살이 이와같이 사유하기를 중생이 악도에 떨어짐은 다 십불선도의 인연을 말미암음이니 이런 까닭에 십선업도 一切種淸淨을 행함이라. 利益衆生戒淨이란 攝善法戒의 위에 보살은 다시 이와 같이 생각하기를

76) 『화엄경』「입법계품」(大正藏 10 · 373下)
77) 『화엄경』(大正藏 9 · 513上~中/ 10 · 149中~下)
78) 『십주비바사론』(大正藏 26 · 95上)
79) 『대지도론』(大正藏 25 · 395中~下)

십불선도를 멀리 여의고 樂行 法行 내지 尊重心 등을 내나니라.[80]

위의 인용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십선도의 전개 과정을 3단계로 나누어서 삼취정계에 대응시켜서 해석하고 있다. 이것을 시작으로 하여 화엄의 戒學은 반야경에 이어서 십선도가 그 내용이 되고 보살 戒學으로서 삼취정계가 확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처음 십선도의 자체를 설명하여 攝律儀戒로 삼고, 십선도의 善의 성격을 분류하여 人天乘의 십선도, 聲聞乘· 緣覺乘· 菩薩乘의 십선도로 분류하여 攝善法戒로 삼고, 십불선도의 과보로서 衆生苦를 설하고 그로부터 해탈 열반의 선법을 권장하는 것을 攝衆生戒로서 나누어 해석하는 것이다. 世親의 이와 같은 주석을 통하여 화엄의 계학은 십선도를 내용으로한 삼취정계로 요약되고, 경문에 나타난 수많은 戒學의 명칭을 통하여 보살의 願行思想 그 자체가 바로 菩薩淨戒로서 무궁한 화엄 계학의 세계를 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菩提에 廻向함을 持戒라 이름하고 菩提에 廻向하지 아니함을 不持戒라 이름하며 聲聞에 廻向함을 破戒라 이름한다"[81]라는 글 속에서 화엄의 戒를 受持한다는 것은 보살의 어떠한 행위를 의미하는 가를 읽을 수 있다.

이와같이 『화엄경』에서 시작된 삼취정계사상은 『해심밀경』[82]에서 다시 명칭이 강조되고, 이어서 대소승 계학의 총괄을 목적으로 편찬된 『유가사지론』계통[83]의 삼취정계와 대승 독자의 계학을 표방하는 『영락본업경』계통[84]의 삼취정계로 나누어서, 삼취정계의 전체적인 사상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음을 고찰할 수 있다.[85]

---

80) 『十地經論』(大正藏 26 · 145中~下)

81) 『孔目章』(大正藏 45 · 551上)

82) 『해심밀경』에서는 戒三種者 一者轉捨不善戒 二者轉生善戒 三者轉生饒益有情戒(大正藏 16 · 705下)라 하고, 이역 본인 『심밀해탈경』에서는 離諸惡戒 修諸善行戒 利益衆生戒(상동, 682上)로 번역하고 있다.

83) 『유가사지론』에서는 在家와 出家의 二分淨戒에 三種이 있다고 전제하고 첫째 律儀戒는 보살의 받을 바 七衆의 別解脫律儀를 들고, 둘째 攝善法戒는 율의계를 받은 뒤에 대보리를 성취하기 위하여 身語意를 통하여 쌓는 一切善法을 의미하며, 셋째 饒益有情戒에는 열 한가지의 戒相이 있다고 설한다.(大正藏 30 · 511上) 또한 『菩薩地持經』이나 『菩薩善戒經』은 다 『유가사지론』계통의 경전이다.

84) 『영락본업경』의 경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佛子· 今爲諸菩薩結一切戒根本 所謂三受門 攝善法戒 所謂八萬四千法門 攝衆生戒 所謂慈悲喜捨化及一切衆生皆得安樂 攝律儀戒 所謂十波羅夷(大正藏 24 · 1020下)

이 경문을 통하여 율의계의 내용이 『유가사지론』의 七衆別解脫戒가 아닌, 『범망경』의 十波羅夷가 그 내용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85) 智儼은 그의 저서 『孔目章』 「第二地初三聚戒章」에서 먼저 三聚戒를 나눈 뒤에 모든 戒의 종류를 一依瑜伽四波羅夷等, 二依瓔珞梵網經十無盡戒, 三依方等經二十四戒, 四依十地論十善戒法으로 나누

2. 화엄계학의 사상적 특성

1) 섭율의적 善行戒學

본 항에서는 이상에서 살펴본 화엄계학을 통하여 그 사상적 특성을 정리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화엄 계학이 근본적으로 십선도를 근간으로 하여 형성되었음은 보살도의 시작을 善行에 놓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다. 보살 十地의 제2離垢地의 '離垢'의 의미를 三業을 맑히는 戒學에 두었고 그것은 곧 殺 盜 婬 妄등 十不善을 여의는 것이며 그러므로 十善을 실천하는 것으로 보살도의 근본을 삼고 있다는 의미에서 華嚴菩薩道의 제1戒學은 '善行戒'로서 정의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善行戒란 보살이 바로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는 먹줄과 같은 역할을 하는 戒學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善行戒로서의 의미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은 『智德經』 등에 보이는 「離垢地」의 기틀이 되는 10종直心[86]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도세품경』류에서 10종 청정계중에 '如來의 正敎를 받들어 지니는 戒' 또는 '道心을 지켜서 大乘을 좋아하는 戒'등도 다 보살의 善行戒로서 분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영락본업경』에서 설하는 바와 같이 보살이 실천해야 할 팔만사천법문이 다 선행계로서 요약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善行戒學은 곧 菩薩道를 보살도로서 정립시키는 근본 律儀가 된다는 의미에서 대승계학을 대표하는 삼취정계에 대비하여 논한다면 곧 섭율의계에 대응시킬 수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십선도를 시작으로 모든 보살도는 一切善의 근본으로서 그 자체가 바로 보살행의 律儀的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2) 섭선법적 空行戒學

화엄계학에 있어서 공행을 강조하는 戒目은 많은 경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空行戒學의 흐름은 화엄계학에서 뿐만 아니라 반야경 내지는 많은 대승경전 속에서 그 사상의 연원을 찾을 수 있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먼저 반야경의 空行戒思想을 살펴보면, 『마하반야바라밀경』에서 6바라밀을 설하는 가운데에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이르시기를, 施人과 受人과 財物이 不可得인 연고로 능히 檀那바라밀을 구족하며, 罪와 不罪가 不可得인 연고로 尸羅바라밀을 구족한다"[87]고 하여 戒바라밀의 不可得相을 설하며, 「無生品」에서는

고, 이 十善戒가 性戒이며 性起戒에 통한다고 보고 있다. (大正藏 45 · 564上~中)

86) 본 논문 앞의 『智德經』(大正藏 10 · 465下)류의 계학에서 <표3> 참조.

87) 『마하반야바라밀경』(大正藏 8 · 220上)

"尸羅바라밀에 의지할 바가 있는 것은 世間의 것이며 의지할 바가 없음을 出世間의 尸羅바라밀"[88]이라는 경문에서도 無所依의 般若空行을 보살이 지향할 바인 出世間의 尸羅바라밀로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六喩品」중에는 보살이 無相尸羅의 一切戒를 구족하나 일부러 원해서 얻어짐이 아님을 설하는 경문도 보인다.[89] 반야경중 후기 성립으로 보는 『승천왕반야바라밀경』「通達品」에서도 반야의 空觀에 입각해서 "보살은 戒相을 보지 않으며 着하지 않는다"[90]고 설함도 같은 맥락이다.

또한 『維摩經』「弟子品」의 우바리존자와 유마거사의 대화 속에 罪相의 不可得을 설하여 一切法이 다 夢幻임을 깨닫는 것이 바로 보살의 '奉律'이 된다[91]고 설함도 空行戒의 동일한 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空行戒의 흐름은 戒바라밀을 설하는 대승계학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사상이다. 이는 곧 般若 空觀이 大乘菩薩戒의 근간이 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화엄의 空行戒도 이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세품경』에서 '菩薩禁戒'의 10事중에 諸佛身에 조차 집착하지 아니하고 諸法 또한 의지할 바 없음을 깨닫는다고 하며, 「범행품」중에 梵行法을 통하여 戒學을 묻는 곳에서 범행법 不可得이 참다운 범행이라는 경문이 있으며, 「리세간품」의 10종청정계중에 "일체 有見을 떠나서 戒에 着함이 없다"고 함도 空行戒로서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空觀에 입각한 戒學사상은 『영락본업경』에서 "마음이 다함이 없는 연고로 戒도 또한 다함이 없다"라는 글 속에서 空行戒의 최고의 理想을 표출해 내고 있다고 본다. 空行이라 함은 곧 菩薩道의 無盡行을 의미하며 또한 다시 일체 取捨를 떠난 平等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화엄의 空行戒의 결론은 無盡行과 平等行을 통하여 보살이 一切善法을 永遠히 닦아 나아감을 뜻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菩薩이 추구하는 최상의 善法은 바로 空行에 있음을 감안할 때에 화엄의 空行戒적 성격은 곧 보살계학의 섭선법계로서 정의 할 수 있는 것이다.

3) 섭중생적 慈行戒學

보살 계학의 마지막 특성은 모든 계학의 실천이 곧 중생을 향한 자비행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화엄계학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淨行品」의 모든 淸淨行은 보

88) 『마하반야바라밀경』(상동, 272中~下)

89) 『마하반야바라밀경』「六喩品」

復次 須菩提 是菩薩摩訶薩 住五陰 如夢如響如影如焰如幻如化 能具足無相尸羅波羅蜜 具足戒不缺不破不雜不着聖人所讚無漏戒 入八聖道分 住是戒中持一切戒 所謂名字戒 自然戒 律儀戒 作戒無作戒 威儀戒非威儀戒 是菩薩摩訶薩成就諸戒 不作是願(大正藏 8 · 390中)

90) 『勝天王般若波羅蜜經』(大正藏 8 · 688中)

91) 『유마경』(大正藏 14 · 541中~下)

살의 자기 자신만을 위한 行이 아니라 항상 중생과 더불어 淨行이 이루어지기를 서원 하는 곳에 화엄계학의 慈行戒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리세간품」에서의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는 戒'라든가, '일체 중생을 佛法에 머무르게 하는戒' '중생을 守護하는 대비를 일으키는 戒'등이다 慈行戒의 범주에 들어가며, 삼취정계의 '饒益有情戒(sattva-arthakriyā-śīlam)'가 곧 慈行戒의 총괄적인 의미가 된다. 慈行은 보살이 平等智慧에 안주할 때 비로소 실천 가능한 것이며 평등지혜란 곧 空觀을 통과하여 얻어진 대긍정의 실천행인 것이다. 이 慈行에 이르러서 一切戒行은 一切善法이 되며 중생을 향하여 끝없이 펼쳐 나아가야 할 보살행으로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곧 화엄의 '一切善法'과 '一切戒學'이 둘이면서 둘이 아닌 不二의 境地에 놓이게 되는 궁극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화엄의 慈行戒學은 곧 섭중생계의 범주에 포괄되어 지는 것이다.

Ⅳ. 결 론

十善道로서 시작된 화엄계학은 수많은 戒學의 명칭을 거쳐서 삼취정계로 요약되었고 이것은 다시 본 논문에서 보살의 善行과 보살의 空行과 보살의 慈行으로서 요약하여 보았다. 이 셋의 실천행은 十善이라고 하는 善法의 本體와 一切善法을 空으로 보아서 無所得과 無執着의 空觀의 실천행이 요청되는 보살도의 最上의 善法이 되며, 空行은 곧 다시 머무르는바 없이 모든 중생을 향하여 平等行이 되고 饒益行이 되어야 한다는 보살도의 과정 속에 자연히 도출되어지는 결과임을 경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화엄계학은 스스로를 청정히 하는 十善行으로 시작하여 중생과 더불어 청정해 지고자 하는 利他行으로서 종결지어 졌다고 볼 수 있다. 화엄의 계학을 利他戒로서 특징짓는[92] 이유는 특히 「리세간품」의 戒學에 관한 經文을 살펴보면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는데, '10종戒'의 "菩提心을 버리지 아니하는 戒, 二乘地를 여의는 戒, 一切衆生의 이익을 관찰하는 戒, 일체 중생을 불법에 머무르게 하는 戒, 모든 善根을 菩提에 廻向하는 戒"등이 이타적 戒學이며, 또 '10종莊嚴'중 제8장엄에서 "보살은 항상 如來淨戒를 護持할 뿐만 아니라 戒를 범한 중생을 敎化하기 위하여 일부러 凡愚의 行을 보여서 보살은 이미 복덕을 구족하여 보살의 경계에 주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중생을 이끌기 위하여 지옥 아귀 축생등 험난한 곳에 나아가는 것으로 보살의 莊嚴을 삼는다"[93]고 하는 것도 戒學을 통하여

92) 平川 彰, 1990, 「華嚴經に見られる初期大乘佛敎徒の宗敎生活」『淨土思想と大乘戒』 p.397, 春秋社
93) 『화엄경』 「리세간품」(大正藏 10 · 301中)

利他行을 실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리세간품」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화엄의 利他的인 菩薩戒學을 찾아 볼 수 있는 것은, 곧 「십지품」의 계학이 보살 청정행의 첫 단계로서 十善의실천에 두었다고 한다면, 「리세간품」에서는 '10종계'와 '10종청정계'를 통하여 自利的 戒로부터 自利利他 合一의 戒學으로 완성시켰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합일을 가능케 한 근원은 역시 「리구지」에서의 十善의 전개에 있어서 三聚淨戒의 해석을 가능케 한 경문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보살의 계학을 요약하여 "보살은 三聚戒를 다 청정히하여 三世를 다 밝게 통달하고 大慈로 중생을 연민히 여겨 일체에 걸림이 없으며, 또한 淨戒중에 安住하여 모든 授記行을 구족하고 능히 佛功德으로 중생의 행위와 및 세계 속에 들어간다"[94]라고 보살의 戒行을 통한 자비 실천행을 찬탄하고 있음을 본다. 따라서 화엄의 戒學은 菩薩道의 실천과 보살의 지킬바 戒學이 둘이 아닌 사실을 확인하는 데에 궁극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94) 『화엄경』「리세간품」의 게송(大正藏 10 · 317上)